

# 주민참여예산으로 정비한 용천수 '홍물' 전략

### 애월읍 신임리 '남포리물' 방치돼 초록빛으로 변해 지난 2015년 관광객 유치 위해 계단식 구조물 설치 "인위적인 구조물로 원형 훼손된 대표적 사례"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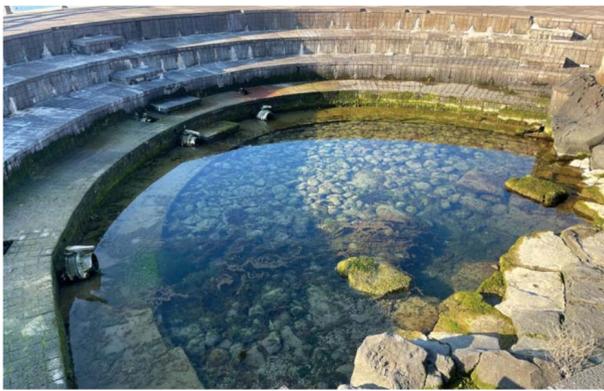
제주시가 주민참여예산을 들여 정비한 용천수가 방치된 채 홍물스럽게 전략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제주시 애월읍 신임리의 신임항 인근에 위치한 남포리물은 곳곳에 이끼와 파래가 가득해 초록빛으로 변해 있었다. 물이 순환하도록 돕는 배출구에도 파래가 끼어 있어 물의 흐름을 막고 있었고 남포리물 한가운데를 차지한 커다란 파래와 더불어 신임항 인근에

팽생이모자반 등으로 인해 악취도 풍겨 나왔다.

인근 주민 박모(28)씨는 "15년 전만 해도 물이 맑아서 여름마다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고 놀았던 곳"이라며 "콘크리트 구조물이 갑자기 생기면서 물이 탁해지고 이끼가 끼기 시작했다. 물이 더러워 보이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포리'는 신임리와 고내리 경계 바닷가 일대를 부르는 말로, 이곳에서 솟아나는 용천수 터를 남포리물이라고 부른다. 남포리물은 마을의 고유한 자산으로 과거 주민들은 용천수를 식수로 사용하거나 물놀이를 즐기기도 했다.

23일 본보 취재 결과 남포리물에는 2015년 애월읍 주민자치예산 사업으로 '해수욕장 및 관광객을 위한 테우체험장 조성사업'이 실시됐다. 약 2억5000만원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용천수 보전과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지금과 같은 계단식



지난 21일 찾은 제주시 애월읍 신임리의 남포리물. 남포리물은 이끼와 파래가 가득한 채 초록빛으로 변해 있었다. 양유리기자

구조물이 들어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구조물이 용천수의 흐름을 막아 수질 오염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양수남 제주자연의벗 사무처장은 "남포리물은 인위적인 구조물로 인해 원형이 훼손된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멘트 구조물이 들어서면서 물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수질 오염이 진행됐고, 구조물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으면 복원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의 목적 중 하나였던 테

우체험장 또한 수년째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애월읍 관계자는 "주민들이 관광객 유치 등을 이유로 조성사업을 실시해 사업이 추진됐지만 테우체험장은 몇 년 전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바다환경지킴이 등을 통해 용천수 내 이끼 제거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장 조사 후 수질 오염 정도를 파악해 환경정비 등 가능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 벚꽃 화사한 애월의 봄으로의 초대

### 28~29일 장전리서 '제8회 애월읍 왕벚꽃축제' 점등식·플리마켓·마술공연 등 참여형 프로그램

"벚꽃의 향연, 화사한 애월의 봄으로 초대합니다."

'제8회 애월읍 왕벚꽃 축제'가 오는 28~29일 이틀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왕벚꽃거리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애월읍연합청년회(회장 양호근)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봄의 설렘을 만나다'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참여 프로그램이 어우러질 전망이다.

행사장에서는 장전리 왕벚꽃길 배경의 왕벚꽃 포토존과 플리마켓, 다양한 무료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축제 첫날인 28일에는 어린이 벚꽃 사생대회와 벚꽃 OX 퀴즈대회가 열리며 오후 6시 30분에 개막식과 왕벚꽃 거리 점등식이 진행되며 봄밤의 정취를 물들인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가족 마술 공연과 노래자랑 등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무대가 마련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자개노리개 만들기, 캘리그라피, MBTI 검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축제의 즐거움을 더한다.



애월읍 왕벚꽃 축제를 찾은 시민·관광객들.

특히 주최 측은 올해 대중교통 이용 인증 이벤트를 도입해 친환경 축제 문화에도 나선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축제장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인근 광령리와 하가리 등 애월읍 일대 왕벚꽃 자생지 명소를 둘러보며 봄나들이를 즐길 수도 있다.

김태현 애월읍장은 "이번 축제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봄맞이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해녀 물질 지켜보는 관광객들. 봄기운이 완연한 23일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해안가를 찾은 관광객들이 해녀들의 물질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강희만기자

# 학교 현장 곳곳서 대가 없는 '교육 나눔'

### 2024년부터 학교서 교육기부 제주농촌교육농장연구회 '눈길' 작년 도내 학생 1만여 명 수혜 "교육청 차원 홍보 다양화할 것"

"저희는 아이들이 현장과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몸소 느껴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의 소중함이나 환경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씨앗이 중요한지, 오렌지가 아니라 우리 농촌의 꿀을 먹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지난 2024년부터 제주 학교 현장에서 '교육기부'를 잇고 있는 제주농촌교육농장연구회의 고은정 회장이 말했다. 연구회는 도내 농촌교육농장 18곳이 모인 기관으로, 현재 회원 40여명이 함께하고 있다.

연구회가 지난 한 해 만난 학생만 해도 도내 10개 학교에 520명이 넘는다. '숱스러운 학교생활', '꼬물꼬물 자연예술가', '풀개네 자연탐험대' 등 다양한 주제의 농촌체험교육을 학교 안에 펼쳐냈다.

올해로 10년 이상 학교 교과와 연계한 농촌교육을 지속해 온 노하우가 교육기부로 연결됐다. 기부 첫 해에 제주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이 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기부라는 말처럼 아이들을 위한 대가 없는 '교육 나눔'이다.

이 같은 사례처럼 제주에서도 교육기부에 대한 관심이 차츰 늘고 있다. 교육기부는 공공·민간 기관과 개인 등이 인적·물적 자원을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 기부와 장비 제공, 재능 기부,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23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육기부 참여 기관 8곳이 운영한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모두 63건으로, 약 340회에 걸쳐 운영됐다. 이를 통해 도내 초·중·고 학생 1만 1000여 명이 혜택을 봤다.

도내 교육기부 인증 발급 건수는 2023년 2건에 그쳤지만, 2024년 10건, 2025년 53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신규 참여자 발굴 한계 등은 과제로 제기된다. 관련 정보와 참여 방법이 학교와 기관에 공문 등을 통해서만 안내되면서 새로운 교육기부 발굴에는 제약이 있었다는 게 도교육청의 분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기부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청 차원의 홍보를 다양화하려 한다"면서 우수 사례 공유로 긍정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도교육청 누리집과 교육기부 포털을 활용한 매칭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제20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제주도 새별오름으로 14만 회원 및 가족 여러분을 모십니다!

2026. 3. 31. (화) ~ 4. 2. (목)  
제주시 새별오름 일원

개막식 3월 31일(화) 18:00  
3.31 환영이밤  
4.1 태군노래자랑

주최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관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그랜드 제주특별자치도

손빈아	조항조	설하윤
천록담	태군노래자랑	우연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원일동